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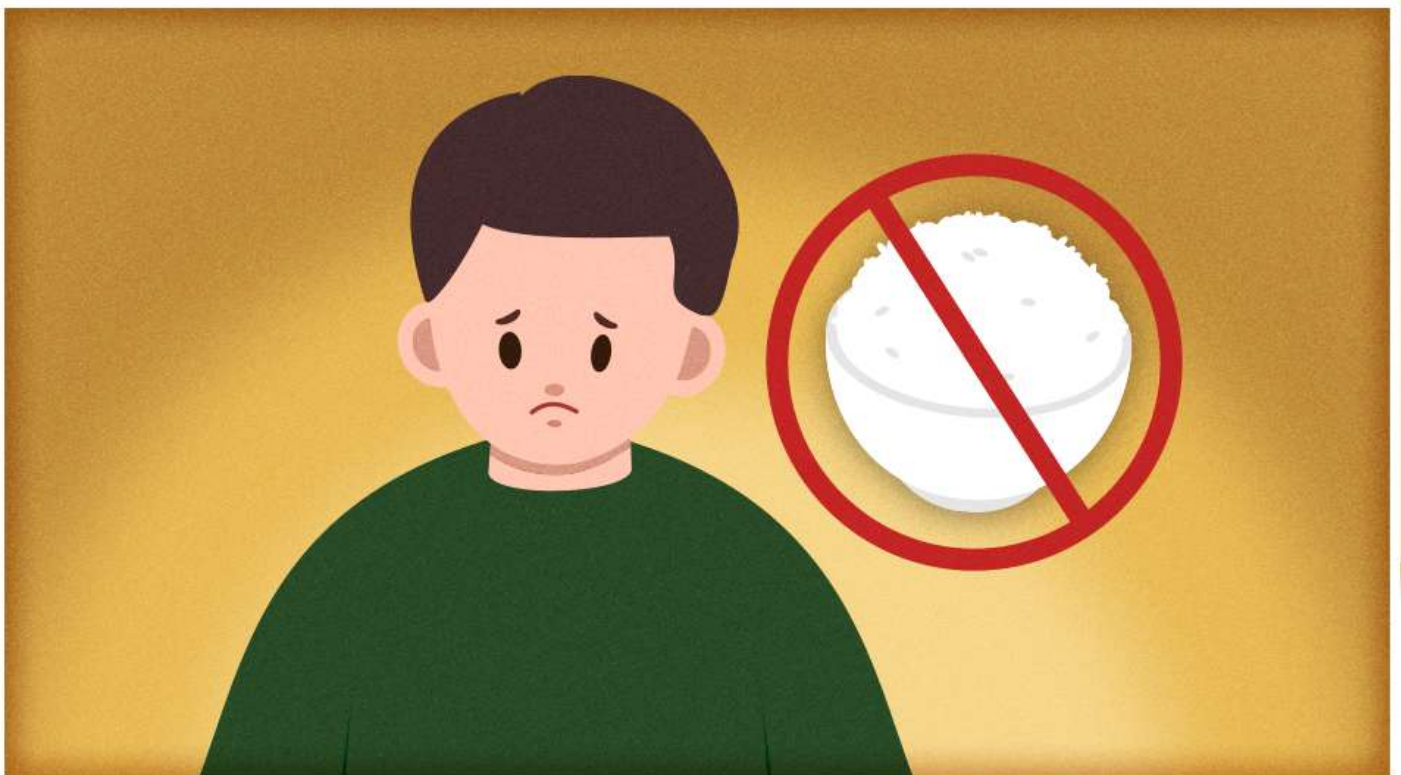
치료제만큼 중요한 '한 끼'
희귀질환자를 위한
저단백 즉석밥 구매
지원체계 구축

질병관리청 - (주)CJ제일제당 -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업무협약 체결



19세 이상
성인 선천성대사이상
희귀질환자도
특수식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희귀질환자에게 특수식은 치료제입니다



선청성대사이상 희귀질환자는
저단백 특수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특수식을 무상으로 지원받는 19세가 지나면
개별적으로 구매해야 해서 공급 부족과
가격 불안정 등에 따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질병관리청, 민·관 협력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은 CJ제일제당과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희귀질환자 특수식 구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19세 이상 성인 희귀질환자도 온라인 전용창구인 '희귀질환 헬프라인'을 통해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 민·관 협력으로 해결했습니다



질병관리청 시스템구축 및 신청자격관리

CJ제일제당 제품 생산 및 공급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구매 접수 및 주문지원

접근성은 높이고, 부담은 줄입니다



온라인 전용 창구인 희귀질환헬프라인
(helpline.kdca.go.kr)을 통해 저단백 즉석밥을
구매할 수 있어 특수식 구매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도 경감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희귀질환 환자의 다양한 수요에 귀기울여

**희귀질환 극복을 위해 민·관이 함께
지원을 확대하고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희귀질환헬프라인



helpline.kdca.go.kr

